

<시험 3> 통마늘 생산을 위한 춘파재배 시험

(1) 생태형 및 종구종류에 따른 단구형성 및 수량

2월 25일 춘파 파종의 종구재료와 생태형에 따른 생육단계 및 생육일수는 Table 11과 같다. 출현기는 주아파종이 단구파종과 분구파종보다 1~2일 늦었으나, 생육일수는 오히려 주아파종에서 가장 짧아 분구파종보다는 생육기간이 5일 단축되었다. 생태형별로는 한지형(단양종)이 중간형(DL01)과 난지형(남도종)보다 출현소요일수가 2.7일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난지형은 휴면이 짧아 맹아와 발근이 일찍 시작되고 인편 분화기와 구 형성 비대기도 빨라 조생종이며, 한지형은 휴면이 길어서 만생종인데, 남도마늘은 한지에서 춘파할 경우 생육일수가 짧았고, 지상부의 생육 정지기는 서산종이 남도마늘보다 늦었다는 보고(Lim *et al.*, 1987)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Table 11. Comparisons of growth characteristics based on seed bulb materials and ecotypes in spring cultivation of garlic.

Seed bulb material	Ecotype	Emergence date	Harvesting date	Required days to emergence	Growth days
Bulbil	Cold type ^{a)}	Mar. 14	Jun. 21	18	117
	Inter.-type ^{b)}	Mar. 12	Jun. 13	16	109
	Warm type ^{c)}	Mar. 11	Jun. 17	15	113
	Mean	Mar. 12 a	Jun. 17 b	16.3 a	113 b
Single bulb	Cold type	Mar. 12	Jun. 27	16	123
	Inter.-type	Mar. 9	Jun. 14	13	110
	Warm type	Mar. 10	Jun. 18	14	114
	Mean	Mar. 10 c	Jun. 20ab	14.3 b	116 ab
Clove	Cold type	Mar. 13	Jun. 28	17	124
	Inter.-type	Mar. 10	Jun. 14	14	110
	Warm type	Mar. 10	Jun. 23	14	119
	Mean	Mar. 11 b	Jun. 22 a	15.0 b	118 a
Ecotype mean	Cold type	Mar. 13 a	Jun. 25 a	17.0 a	121 a
	Inter.-type	Mar. 10 b	Jun. 14 c	14.3 b	110 c
	Warm type	Mar. 10 b	Jun. 19 b	14.3 b	115 b
S ^{d)}		**	**	**	**
E ^{e)}		**	**	**	*
S×E		**	ns	ns	ns

^{a)}Danyangjong, ^{b)}DL01, ^{c)}Namdojong, ^{d)}Seed bulb material, ^{e)}Ecotype

Same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alpha=0.05$ by DMRT(*, $p<0.05$; **, $p<0.01$; ns, non-significant)

춘파재배에 따른 종구재료와 생태형별 출현율 및 한해 정도는 Table 12와 같다. 출현율은 주아파종에서 80%로 가장 높았고, 단구파종과 분구파종은 75~76%로 낮았다. 생태형별로는